불통의 양현석… "상명하달 의사결정 확고했다"

-전 YG엔터 직원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이끄는 YG엔터테인먼트가 탑, 박봄, 지드래곤, 승리 등 전현직 소속 가수들의 잇단 논란과 의혹, 그 대처 방식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비난에 휩싸였다. 양현석은 14일 "모든 직책과 업무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SM·JYP와 달리 모든 결정에 권한행사 '1인천하'
소속가수들 마약 은폐·탈세 혐의…예고된 파국

소속 가수들의 갖은 논란으로 YG엔터테인먼트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양현석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빅뱅, 투애니원, 블랙핑크 등 케이팝 스타들을 배출해왔지만 그 이면에서 일부 가수의 마약 의혹과 성추문 등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는 양현석 '1인 중심'의 폐쇄적 회사 운영 방식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현석이 1998년 설립한 YG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코스닥 상장을 기점으로 사세를 키웠다. 2015년 자회사 YG플러스를 통해 드라마 제작, 화장품 및 외식업, 모델에이전트, 골프 매니지먼트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도 나섰다. 2016년 시가 총액 8000억 원대로 1조 원대 진입까지 바라봤지만 현재는 반 토막 수준인 5300억 원대로 추락했다.

연예계 안팎에서는 YG의 총체적 난국이 원활한 소통의 '단절'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양현석에게 집중된 운영 시스템, 수직적 행보와 대중 불통이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YG 출신 한 방송 관계자는 "쌍방향 소통으로 최선책을 찾기보다 상명하달의 의사결정 구조가 확고하다"며 "그런 분위기가 한때 'YG패밀리'라는 인식을 만들었지만 그만큼 폐쇄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는 2006년 데뷔한 그룹 빅뱅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고착화했다. 외부 투자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속 가수들의 잇단 논란과 의혹에 대처하는 방식도 비슷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팬이나 대중을 탓하기까지 했다. 2014년 투애니원의 박봄이 마약 성분 약품을 밀반입해 적발됐을 때 양현석은 "박봄이 과거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았다"고 해명했을 뿐이다. 이런 일방적인 행보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대중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YG엔터 실질적 타격은 미미…'YG 불매운동'이 기름될 수도

양현석과 YG의 앞날은?

YG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인 양현석이 "더 이상 저로 인해 피해가 가는 상황은 없기 바란다"며 14일 회사의 모든 직책과 업무에서 물러났다. 회사 설립 21년 만의 '불명예 퇴진'이다.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를 선언한 지 4시간 만이었다. YG의 모든 콘텐츠에 일일이 관여해왔던 그가 전격 사퇴함으로써 향후 YG와 그의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YG는 일단 내부 조직을 재정비하고 위축된 분위기를 추슬러야 하지만 양현석에 이어 친동생인 양민석 대표이사까지 사임하면서 '콘트롤 타워'의 주요 기둥이 사라지는 상황에 처했다. SM이나 JYP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대형 기획사와 달리 양현석이 모든 결정 및 권한을 행사해온 만큼 그의 사퇴가 YG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연예계는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현석이 YG의 최대주주(지분 16.12%)라는 점에서 경영에서 손을 떼더라도 YG가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의 변수는 경찰 수사 과정이다. 빅뱅에 이어 YG의 주요 수익 콘텐츠가 된 그룹 아이콘의 핵심 멤버 비아이의 마약 연루 및 양현석의 개입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탈세 등 혐의를 확인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결과 역시 주목된다.

무엇보다 대중의 커다란 실망감과 불신은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YG 불매운동'과 함께 "YG의 연예활동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방송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호평을 받아온 tvN '강식당2'의 은지원과 위너 송민호가 "YG 소속이라 보기 껄끄럽다", 13일 솔로로 나선 전소미의 예능프로그램 출연 소식도 "때가 아니다"는 등 시청자의 부정적 시선을 받고 있다. 방송사가 YG 소속 연예인의 캐스팅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16명 투입 'YG 전담팀' 구성
양현석 은폐 의혹 본격 수사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나?

마약 구매·투약 의혹을 받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23)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의혹에 개입해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도 수사선상에 올려놓았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나원오 형사과장을 총괄로 최관석 마약수사대장이 팀장을 맡는 16명 규모의 'YG 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2016년 비아이의 마약 구매·투약 혐의를 비롯해 관련 의혹을 주장한 여성 한 모 씨(24)와 그에 대한 양현석의 협박 등 개입 여부,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조사 논란, 양현석과 경찰 유착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한 씨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비아이의 마약 의혹 연루 주장을 폈다. 이후 양현석이 자신을 만나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이와 관련해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한 씨가 3년 전 경찰의 조사를 받았을 당시 기록을 다시 보고 있다. 한 씨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며 "비아이를 포함해 필요하다면 양현석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현석은 14일 입장문에서 "언론 보도와 구설의 사실관계는 향후 조사과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최근까지 해외에 체류해온 한 씨는 14일 SNS에 "이틀 후 한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비아이는 마약 구매와 투약 의혹 모두를 부인한 상태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본인 확인 애매하니까 나가라?
팽 당한 'BTS 팬들' 집단항의

'부산 팬미팅' 100여명 피해…빅히트 "개선할 것"

그룹 방탄소년단이 불법 입장권 및 암표 근절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팬들의 잇단 항의 등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맞닥뜨렸다.

방탄소년단은 15일과 16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총 5만여 팬들과 함께 팬미팅 '제5회 머스터 매직 샵'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4월 초부터 사전공지를 통해 티켓 추첨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크로(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컴퓨터 자동 프로그램)를 통한 다량 티켓 구매와 고액의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참가 희망자를 추첨한 후 당첨자에게만 입장권을 판매했다. 행사 현장에서 구매자와 실제 입장객의 신분을 대조하는 등 불법 입장권 및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운용한 첫 시도였다.

15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방탄소년단의 팬미팅이 열린 가운데 일부 팬들이 인근 도로변에서 행사장을 엿보고 있다. 부산 | 뉴시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란이 일었다. 초등학생 자녀 대신 구매한 부모들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이를 입증하려 했지만, 주최 측은 예매자와 실제 입장객이 다르다며 입장시키지 않았다. 또 학생증 사본을 준비해간 일부 예매자들도 실물 학생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장할 수 없었다. 타인 명의로 예매한 외국인 미성년자 상당수도 공연을 보지 못했다.

이에 100여 명의 팬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현장 스태프는 "원칙"만을 내세웠다. 결국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또 일부 팬들은 경호요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주최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16일 "양도 받은 티켓이나 본인 확인이 불가한 티켓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입장이 불가함을 이미 예매 시작 전부터 수차례 알렸다. 앞으로 개선 방안을 적극 고민해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경호요원 성희롱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4

'61억 빌라 매입' 소지섭 결혼설 솔솔

소지섭

연기자 소지섭이 61억 원에 달하는 고급 빌라를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교제 중인 아나운서 출신 리포터 조은정과 결혼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소지섭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 빌라를 매입했다. 연예계 안팎에서는 그가 조은정과 결혼해 신혼살림을 꾸릴 공간으로 보고 있다. 소지섭 측은 이날 빌라를 매입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조은정과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안성기, 6·25 전사자 위한 광고 내레이션

안성기

배우 안성기가 6·25전쟁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라디오 광고의 내레이터로 나선다. 안성기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전사자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를 장려하는 광고의 내레이션을 맡는다. 그는 16일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중훈도 13일 강원도 화천지역 유해 발굴현장을 탐방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백종원의 요리비책' 구독자 150만 돌파

백종원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유튜브 채널 '백종원의 요리비책'을 최근 개설한 가운데 15일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백종원은 '백만 명이 되었습니다!'는 제목의 관련 영상에서 "수준이 높지 않지만 더 응용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백종원의 요리비책' 구독자는 16일 오후 현재 구독자 150만 명을 넘어섰다.

영화 '알라딘', 박스오피스 1위 탈환

영화 '알라딘'

뮤지컬 영화 '알라딘'이 17일 만에 '기생충'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탈환하며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6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알라딘'은 15일 전국 1384개 스크린에서 42만7984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누적 491여만 명으로 흥행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16일 500만 관객을 넘어 5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5월23일 개봉한 '알라딘'은 한국영화 '악인전'에 이어 흥행 2위를 기록한 뒤 순위 역주행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